

# 새 꽃은 옛 가지를 의지해 피어난다

### 야부 스님의 계승에 의한 선의 견지 밝혀 무각 스님의 '그대 삶이 경전이다'



그대 삶이 경전이다

무각 지음 불광출판사 1만5000원

“도심 한 복판의 포교현장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더욱 선(禪)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불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전이다. 그러다 보니 시종에는 《금강경》과 관련된 번역서·해설서들이 100여 권이 넘게 유통되고 있다. 불광사 불광선원장·공생선원 선원장인 무각 스님도 최근 《금강경》을 출판했다.

보통 대부분의 《금강경》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금강경》이 견지하고 있는 반야의 이해나 선의 견지

를 모두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무각 스님은 오랫동안 도심 한복판에서 선을 지도하고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선의 견지를 철저히 견지하는 중급자용 《금강경》을 출간했다.

스님은 “시간의 리듬들이 빠르고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선과 《금강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집필 이유를 밝혔다. “고요히 본체만 지키려 하면 작용할 줄 모르게 되고, 작용하려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본체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지금 있는 이 자리, 자기의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할 때 진정한 수행의 힘이 생깁니다. 수행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며, 자성의 부처님을 ‘믿고 맡기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각 스님은 2000년도부터 조계사 참선반에서 행한 《금강경》 강의를 시작으로 불광사 불광선원, 공생선원에서 수차례 ‘선으로 뜻을 품 금강경’을 강의했다. 또 ‘불교신문’에서 매주 ‘신금강경’을 연

재했다. 책은 이를 바탕으로 엮어졌다. 입문자용 《금강경》을 읽었던 이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두 번째, 세 번째 《금강경》을 선택해야 한다면 책은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무각 스님은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가운데 야부 스님의 송(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철학적인 명제를 따라 《금강경》을 읽어간다. 《금강경》에 붙인 계승을 《금강경》의 원문과 해설 뒤에 붙여 놓고 해설하는 방식이다. 스님은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집필원칙으로 삼았다.

“야부 스님은 ‘새 꽃은 옛 가지를 의지해 나온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지혜가 앞서 행하고 가신 선배 선지식들의 지혜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곧 앞선 선배요, 지금 후배인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가 둘이 아닙니다. 선배는 후배로 해서 있는 것이며, 후배는 선배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야부 스님의 계승은 단락 단락한 편의 선시를 읽는 것처럼 담박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선문답 이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 계승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짚어



주며 《금강경》의 참맛을, 그리고 선의 견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금강경》은 때론 참선에 대한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중급자용 책으로 알고 있지만, 때론 초급자들이 더 막힘없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히려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책은 마치 두 권의 책을 한 번에 읽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금강경》의 원문과 해설, 야부 스님의 계승과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설까지 만날 수 있다. 책에는 “《금강경》 첫 구절 속에 마지막 구절이 있고, 시

작함과 동시에 완성이 됐다”는 스님의 말처럼, 단순한 경전 해설이 아닌 무각 스님의 오랜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느낀 깊은 생각이 묻어난다.

“저는 제 역할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알아봐주길 원해서기보다 항상 부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책은 무각 스님이 말하는 한 구절을 통해 선의 견지를 깨닫고, 자기의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이은정 기자

## 신심을 바로 잡아 줄 ‘금강경’

### 민족사, ‘왕초보 금강경 박사 되다’

아직도 《금강경》이 어렵다는 왕초보들을 위한 책이 출간됐다. 민족사에서는 왕초보 시리로 《왕초보 금강경 박사 되다》를 펴냈다. 《왕초보 금강경 박사 되다》는 《금강경》 관련 도서 중 가장 쉽게 《금강경》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초기경전으로 공과 반야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반야의 지혜로 모든 고정적인 관념, 형상, 지위, 역할, 분별, 시비 등을 끊어버리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저자 이재열은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조건적인 심신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의 경전이라도 바로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인생관과 세계관, 생사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금강경》에는 대승의 가르침에 근거해 초기불교의 여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실제는 아무 실제가 없음을 증명한다. 이

어 실체가 없어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제대로 빛을 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금강경》을 해설하면서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의 내용을 인용해 독자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소개를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의 가르침 또한 들을 수 있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초보 불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불교를 믿는 목적이 신통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효험을 얻는 데 있지 않다”고 역설하며, 마음속의 미망과 번뇌를 깨뜨리고 해탈을 얻어 모든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한다.

왕초보 금강경 박사 되다 이재열 지음 민족사 9500원



## 금강 스님과 7명의 학생들이 만든 기적



더 나은 교육 여건과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매년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면서, 수많은 농어촌의 학교들이 폐교하고 있다. 책에 소개된 해남 땅 끝 마을의 ‘서영분교’는 폐교 위기를 넘긴 학생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교생이 7명뿐인 서영분교는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 지키기에 나선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고, 예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풀꽃들도 학교에 옮겨 심는다.

특히 책에는 7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서영분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미화사 주지 금강 스님의 모습이 함

께 그려져 있다. 금강 스님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동창회에 나가 학교를 되살려 보자는 뜻을 모으는가 하면, 그동안 지니고 있던 서화도 내다팔고, 미화사에 음악회를 열어 학교 살리기 기금도 모았다.

학생들과 금강 스님의 갖은 노력으로 인해 중교 버스인 연두색의 ‘구름이 버스’를 구입해 스쿨버스도 운행하게 된다. 이후에도 금강 스님은 학생 유치 학부모 모임을 만들고, 도서관을 세우는 등 서영분교를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2003년 폐교 위기에 처했던 서영분교는, 전교생 7명에서 현재는 5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마을이 살아야 절도 산다’고 말하는 금강 스님과 7명의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폐교 살리기 운동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명할 마을 구름이 버스임정진 지음 밝은미래 19000원

## 마음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와요



최근 《와트킨스 리뷰》에서는 세계의 영적 지도자 100명을 선정했다. 1위는 에크하르트 톨레, 2위는 달라이 라마였다. 책의 저자 바이런 케이티는 17위로 랭크됐다. 《호호야, 그게 정말이야?》는 바이런 케이티가 쓴 첫 번째 동화책이다.

바이런 케이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 “문제를 거꾸로 접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어 이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자신

에게 던져보라고 권유한다. 첫째, 그게 진짜일까? 둘째, 정말 그게 진짜라고 믿는가? 셋째, 그 생각을 믿고서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지? 넷째, 그 생각을 없앤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될까?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호호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친구들은 자기를 따돌려 억울해 한다. 그때 지혜로운 거북이가 나타나 이 4가지 질문을 던지며 호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게 만든다. 주인공 호호는 자기 문제가 남 때문이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결국 다시 행복해진다. 책은 어린이들이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으로써 마음을 바꾸기만 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호호야, 그게 정말이야? 바이런 케이티 지음 정음 옮김 불광출판사 9800원

## 비싼 장난감 대신, 긍정을 선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임의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해 봤나요? 자주 말하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믿으면 행동도 변하고, 마침내 말 한 그대로 이뤄진답니다.”

저자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치유》라는 책을 통해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저자는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변한다고 말한다. 자주 말하다 보면 그게 진짜라 믿게 되고, 믿으면 행동도 변하고 말한 그대로 이뤄지게 된다는 것. 저자는 이를 ‘주머니 속의 선물’이라 부른다.

특히 저자는 아이들의 경우 거울을 통해서 쉽게 ‘주머니 속의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격정, 화, 두려움은 부정적인 말이며, 행복, 희망, 사랑 등은 긍정적인 말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주문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생각과 말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나는 나를 사랑해’와 같은 말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은 견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자신이 외톨이라고 생각하거나, 욕심이 지나칠 때, 실수를 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두고 작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에 이르게 된다면 행동의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책은 실제로 아이들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을 그림을 통해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어린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주머니 속의 선물 루이스 L 헤이·크리스티나 트래이스 지음 정음 옮김 불광출판사 9800원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제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여래원 원장 해 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4817-0550

## 해성불원(海戒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은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자체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면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7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려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한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